

# 손의 가치 담은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전주공예품전시관 17일  
1년2개월 만에 재개관

전주한옥마을을 핵심문화시설인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수공예문화와 산업, 손의 가치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와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17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대한민국 공예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재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옥마을의 중심인 태조로에 자리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은 2002년 개관 이후 1000만 관람객 시대를 연 한옥마을의 핵심 문화시설이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정비 공사를 진행해왔다.

시는 그간 단순히 공예상품만을 판매하는 곳으로만 운영된 전시관에 대해 수공예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전주한옥마을 빅데이터 분석, 소비성향분석 등을 거쳐 연면적 1084㎡ 규모의 한옥 6동을 공간마다 특색있는 장소로 꾸몄다.

이 곳은 판매관·명품관·안내관·전시1관·전시2관·체험관·다목적관 등 총 7개 공간으로 재구성됐으며, 전체 콘셉트는 '문화공간 습(합)'으로 서로를 이어주고 어울리게 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문화공간이라는 뜻을 담았다. 먼저 입구 안내관은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예 문화와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꾸

며진다. 명품관은 전주만의 명품 수공예 온(ONN) 브랜드의 다양한 작품과 품격을 만날 수 있는 기획 전시 판매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간인 판매관은 국내 공예상품을 판매하는 판매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 공예작가의 작품과 대한민국 우수 수공예품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전시·판매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입점 상품 심사를 거친 약 1000종의 다양한 공예상품이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2개 전시관은 공예 작품을 전문으로 전시할 공간이 부족했던 지역의 공예 작가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공예 작가들의 작품 및 상품을 전시하거나 전주공예품전시관만의 특별한 기획전시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손쉽게 손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새로 태어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전주의 문화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공간이자 전주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는 17일 재개관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전주에서 활동하는 전통공예 무형문화재 명인 5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통을 통해 현재를 꾸미다' 개관 특별전시를 진행한다.

/송효철 기자



전주한옥마을에서 '신명나는 전주한옥마을 사물놀이 한판' 공연이 열리고 있다.

## '우리가락 울려 퍼지는 한옥마을'

여행객들의 만족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 운영  
판소리·국악 거리방송과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판 등 '풍성'

올 겨울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은 거리를 울려 퍼지는 판소리와 국악방송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겨울 내내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에서는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풍성한 전통문화 공연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겨울철 전주한옥마을의 자연경관과 한옥의미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를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추운날씨에도 신명나는 전주한옥마을을 만들고, 상업화에 대한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하루 4차례씩 판소리와 국악을 주제로 한 거리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광장과 은행로거리에서는 여행객들이 신명나는 사물놀이한판을 만날 수 있는 '신명나는 전주한옥마을 사물놀이 한판' 공연도 진행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시설들도 12월 한 달 간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를 준비해 관람객을 맞고 있다.

먼저, 전주소리문화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판소리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완판문화관은 매주 토요일 '전주를 담은 백제 와당 전시체험전'을 진행하고,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매주 주말 '하에사가 들려주는 전주 한옥마을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다.

부채문화관도 주말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부채만들기'를 진행하고, 공예공방촌과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는 각각 한지공예품 체

험 프로그램과 이야기술 체험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이외에도 내일 '시민감사의 밤' 클래식 공연이 한벽문화관에서 펼쳐지고, 15일에는 맛, 멋, 흥의 전통문화프로그램 '전주 3樂 페스타'와 국립무형유산원 2018년 송년공연이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열린다. 16일에는 온고을소리청에서 적벽가 연창발표회가 개최되며, 29일에는 '조선 왕, 광대를 만나다' 공연이 여행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과 함께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을 주제로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담은 리플릿을 여행객들에게 배부해 겨울철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이 전주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 누구나 연중상시 한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옥마을의 콘텐츠 운영방향이다"라며 "전주한옥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와 감각적인 공연들을 지속 발굴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은 국내외를 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각종 TV프로그램 촬영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개인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전주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수공예문화와 산업, 손의 가치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